

몹시 힘들고 어려움

고전을

어떤 상태나 처지에서 벗어나다

면하다

로

내신과

수능 국어를

한 번에 끝내다

고전시가
해석
풀이집

구성과 특징

1부. 고전(苦戰)을 면하는 길

Step 1 고전시가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반복해서 읽어 보자.

첫째, 교재에 제시된 고전시가 원문을 읽고 둘째, 친절하고 자세한 현대어 풀이를 읽은 다음 셋째, 이 둘을 비교해 보자. 고전시가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비교함으로써 작품에 쓰인 단어와 표현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아래의 예를 통해 Step 1의 학습법을 배워 보자.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하얗게 핀 배꽃에 밝은 달이 비치고 은하수는 깊은 밤(밤 11시~새벽 1시)을 일리는 때에

Step 2 OX 문제 풀이로 작품 이해를 확인하자.

고전시가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비교해 가며 공부한 다음에는 기출 선지를 변형한 OX 문제를 통해 작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점검해 보자.

즉, Step 2에서는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근거로 정답을 선택하는 사고의 과정을 훈련해 보는 거야.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하얗게 핀 배꽃에 밝은 달이 비치고 은하수는 깊은 밤(밤 11시~새벽 1시)을 일리는 때에

Step 3 다양한 장치를 통해 작품을 빈틈없이 공부하자!

2부에 실린 각 작품에는 고전시가 원문, 현대어 풀이, OX 문제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석의 틀', '해석의 덤', '핵심 박스(주제+특징+해제)' 등의 학습 장치를 수록해 두었어.

'해석의 틀'은 고전시가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에 대해, '해석의 덤'은 작품 해석을 깊이 있게 해주는 표현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핵심 박스'는 작품의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및 작품 전체에 대한 꼼꼼한 설명을 싣고 있지.

즉 Step 3에서는 '해석의 틀', '해석의 덤', '핵심 박스' 등을 읽고 작품에 대한 핵심 정리를 빈틈없이 해 두자!

How to use 고전을 면하다

- 「고전을 면하다」 교재를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Step 1, 2, 3의 과정으로 안내합니다.
- 단계별 학습법을 익혀 2부에 수록된 고전시가 작품들을 빈틈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1) 고어 읽기의 기본

고전시가 작품을 비교적 현대어와 비슷한 표기법이 출제될 때도 있고, 현대어와는 많이 다른 고어 제어를 사용하여도 수능과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상운곡,서월' 만 '복음' 작품을 표기할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 따라서 우리는 고전시가 원문이 어떤 방식으로 표기되어 출제되더라도 파악없이 읽고 해석할 수. 그럴 때마다 고어를 읽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 줄게.

2020학년도 9월 모의

후의(후)에 꽃을 보네 이 내 생애 벗어보고
후의(후)에 꽃을 보네 이 내 생애 벗어 보리라
뜻밖의 풍류로 뒤늦게 또 뒤늦게
뜻밖의 풍류로 뒤늦게 또 뒤늦게
전지간 남가 풍이 날면 또 이 향연이
전지간 남가 풍이 날면 또 이 향연이
산만이 꽃처럼 지어(도)우를 만질 것
산만이 꽃처럼 지어(도)우를 만질 것
- 정유인, 「상운곡」 -

① 소리 내서 읽기

고전시가는 오늘날과는 달리 소리는 대로 표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리 내서 읽어 보면 의미가 달라. 그러나 일단 소리 내서 읽어 보자.

(2) 고전시가 주제별 분류

시항에 출제되는 고전시가 작품의 주제는 대개 '자연친화'와 '충성심/우국', '주제에 대해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작품에 접근하기 수월하지. 물론 이외에 부모님에 대한 '효' 같은 유교 윤리를 주제로 한 작품, 기행 경험, 작품 등도 있으니 위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하되 이를 확장해가며 공부하자

① 자연친화

고전시가 작품에서 가장 눈에거볼 주제는 바로 '자연 친화'야. 자연 친화는 자살을 긍정, 예찬하는 태도를 말하지. 자연 친화를 주제로 한 작품에는 자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과 속세에 있는 화자가 자연에 살기를 소망하면서 자연에

창화에 비문 혹은 녹용에 고기 캐어
창화에 비문 혹은 녹용에 고기 캐어
도적화중에 배 띄어두고
도적화중에 배 띄어두고
말만 장차이름 아니 부니 아궁살가
말만 장차이름 아니 부니 아궁살가
푸른 연못에 벌을 채고 비둘기재
푸른 연못에 벌을 채고 비둘기재
갈매의 이슬이 가득한 곳에 배
갈매의 이슬이 가득한 곳에 배

(3) 고전시가 빈출 단어 · 표현

일시 고전시가 작품의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제 한 사용되는 단어와 표현들에 대해 공부해 보자. 어휘와 의미를 알아본 후에 이 어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① 자연, 자연 친화

□ 자연의 대유적 표현(=자연)

어휘	의미	예
강호, 강산	강과 호수, 강과 산	강호에 벗이 김피 대만당 다들 이 없
산림, 산수, 산천	산과 숲, 산과 물	친필에 못치 이서
임천	숲과 샘	이마도 임천 ㅁ

(4) 고전시가에서 자주 묻는 표현상의 특징

고전시가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실의적 표현, 영탄적 표현에서 묻지 않더라도 작품을 해석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휘를 소개해 보자.

① 실의적 표현

실의적 표현은 의문문의 형식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표현법. 아래의 기출 문제에 ㉠ 또는 ㉡로 답한 후 이어지는 설명을 읽어 보도록 하자.

(가)
어와 동방계(東陽界)로 더리 후야 아이 높고
어와 동방계(東陽界)로 더리 후야 아이 높고
힐뜨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사
힐뜨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사
못 못수 고저(卑下) 자* 등고 하당대다 말려누다
못 못수 고저(卑下) 자* 등고 하당대다 말려누다
- 정철, 「어와 동방계잡」 -
이 동방이
2천기가?
일고 풍어,
이러 목수?

(나)

고전시가 '이것만은 알고 가자'

- 본격적인 고전시가 작품 공부에 앞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기본적인 고어, 자주 나오는 주제 · 단어 · 표현상의 특징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의 친절한 구어체 설명을 따라가며 1부 **How to use 고전을 면하다**와 **고전시가 '이것만은 알고 가자'**의 내용을 충분히 학습한 후 2부로 넘어가세요.

2부. 고전(古傳)으로 통하는 길

01 이조년,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15 ● 모평A

●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 삼경(三更)인 제 ^{Q1, Q2}
하얗게 핀 배꽃에 밝은 달이 비치고 은하수는 깊은 밤(밤11시~새벽1시)을 알리는 때에.

● **해석의 틀** '이화'는 배꽃이라는 뜻으로, '도화(복숭아꽃)', '두견화(진달래꽃)', '행화(살구꽃)' 등과 함께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시어이다.

● **해석의 틀** '삼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를 뜻하는데, '깊은 밤'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녀 시가에 자주 등장한다.

✦ 일지춘심(一枝春心)을 ●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배나무 한 가지에 어려 있는 봄날의 정서를 두견새가 알고 우는 것이겠나마는.

✦ **해석의 덩** '춘심'은 '봄철에 느끼는 실화'와 '남녀 간의 사랑'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일지춘심'은 '배나무 한 가지에 어려 있는 봄날의 정서'와 '남녀 간의 사랑'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Q1 밝은 달빛을 받는 '이화'에서 환기된 화자의 정서가 '자규'를 통해 심화되고 있다.

○ ○

Q2 '삼경'은 화자가 대상과 이별하는 시간적 배경이다.

○ ○

- 고전시가 공부의 핵심은 작품 해석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현대어 풀이를 고전시가 원문 바로 아래 배치하여,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함께 읽으며 작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에 기출된 적 있는 작품은 시험별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2 ● 수능은 '2022학년도 11월 수능 시험'에 나온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에 출제된 선지를 변형하여 ○ ○ 문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작품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실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 삼경(三更)인 제 ^{Q1, Q2}
하얗게 핀 배꽃에 밝은 달이 비치고 은하수는 깊은 밤(밤11시~새벽1시)을 알리는 때에.

● **해석의 틀** '이화'는 배꽃이라는 뜻으로, '도화(복숭아꽃)', '두견화(진달래꽃)', '행화(살구꽃)' 등과 함께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시어이다.

● **해석의 틀** '삼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를 뜻하는데, '깊은 밤'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녀 시가에 자주 등장

✦ 일지춘심(一枝春心)을 ●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배나무 한 가지에 어려 있는 봄날의 정서를 두견새가 알고 우는 것이겠나마는.

✦ **해석의 덩** '춘심'은 '봄철에 느끼는 실화'와 '남녀 간의 사랑'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일지' '배나무 한 가지'라는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해석의 틀** '두견새(정동새)'는 그 울음소리가 구슬퍼서 한과 서러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쓰인다.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Q3}
정(情)이 많은 것도 병인 듯싶어 잠 못 들어 하노라.

● **해석의 틀**에서는 고전시가 작품에 자주 등장하여 기억해 두면 작품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표현에 ● 표시를 하고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해석의 덩**에서는 작품의 해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주는 표현에 ✦ 표시를 하고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눈여겨볼 어휘'는 형광펜을 칠해 두어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제
자연 속에서 어부도 살아가는 즐거움

특징
①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공간을 제시하여 주제를 부각함

특징
『친심녹수』, 『만첩정신』 → 『심장홍진』

② 설의를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냄

특징
『일반정』의미를 어니 부니 아루실가, '어주에 누어신도 니즌 스치 이시랴'

해제

「어부단가」는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를 화자로 설정하여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살을 노래하는 한편, 속세에 대한 걱정과 미련 또한 드러내고 있다.

● <보기>로 작품 보기

이현보는 만년에 혼탁한 정계(政界)에 실증을 느껴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와 여생을 보냈다. 그는 자연을 즐기며 시적(詩作)에 힘썼으며, 고려 때부터 전해지던 「어부가」를 「어부단가」로 개작하기도 하였다. 이현보는 이 작품을 통하여 유유자적하

● '주제', '특징', '해제' 등을 통해 해당 작품을 깊고 넓게 이해하여, 수능과 내신을 아우르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보기>로 작품 보기를 통해 실제 시험에서 해당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더 자세히 분석하고 싶다면, 「2023 수능 대비 홀수 국어 기출 분석서 문학」을 활용하여 보세요.

목차

1부. 고전(苦戰)을 면하는 길

How to use 고전을 면하다	P.11
고전시가 이것만은 알고 가자	P.16

2부. 고전(古傳)으로 통하는 길

Part I . 시조

[평시조]

- 지문으로 출제된 평시조 -

01. 이조년, 「이화에 월백하고~」	P.34
02. 원천석, 「흥망이 유수하니~」	P.34
03.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에~」	P.35
04. 송순, 「풍상이 섞어 친 날에~」	P.35
05. 황진이, 「어저 내 일이야~」	P.36
06. 임제, 「청초 우거진 골에~」	P.36
07. 계랑, 「이화우 흠뻑릴 제~」	P.37
08. 홍량, 「뭇버들 가려 꺾어~」	P.37
09. 정철, 「어와 동량재를~」	P.38
10. 이항복, 「철령 노끈 봉을~」	P.38
11. 박인로, 「조흥시가」	P.39
12. 조찬한, 「빈천을 팔려고~」	P.39
13. 남구만, 「동창이 밝았느냐~」	P.40
14. 김수장, 「초암이 적료훈디~」	P.40
15. 이정보, 「국화야 너는 어이~」	P.41
16. 안민영, 「임 이별 하올 적에~」	P.41

- 선택지에 제시된 평시조 -

01. 이색, 「백설이 찾아진 골에~」	P.43
02. 정도전, 「선인교 나린 물이~」	P.43
03. 이방원, 「이런들 어떠하며~」	P.44
04. 정몽주의 어머니, 「까마귀 싸우는 곳에~」	P.44
05. 이직, 「까마귀 검다 하고~」	P.45
06. 변계량, 「내게 좋다 하고~」	P.45
07. 김종서, 「북풍은 나무 끝에 불고~」	P.46
08. 성삼문, 「수양산 바라보며~」	P.46
09. 월산대군, 「추강에 밤이 드니~」	P.47
10. 이현보, 「귀거래 귀거래~」	P.47
11. 이현보, 「농암에 올라 보니~」	P.48
12. 서경덕, 「마음이 어린 후니~」	P.48
13. 조식, 「두류산 양단수를~」	P.49
14. 조식, 「삼동에 베풀어 입고~」	P.49
15. 이충, 「이 몸이 쓸 데 없어~」	P.50
16. 성훈, 「말 업선 청산이오~」	P.50
17. 정철, 「재 너머 성 권농 집에~」	P.51
18. 조현, 「지당에 비 뿌리고~」	P.51
19. 황진이, 「산은 옛 산이로되~」	P.52
20. 신희, 「노래 삼긴 사람~」	P.52
21. 김상헌, 「가노라 삼각산아~」	P.53
22. 주익식, 「형산의 박옥 얻어~」	P.53
23. 이명환, 「꿈에 다니는 길이~」	P.54

[연시조]

01. 황희, 「사시가」	P.57	08.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P.70
02. 이현보, 「어부단가」	P.58	09. 박인로, 「자경」	P.72
03. 이신의, 「단가 육장」	P.60	10. 이별, 「장육당육가」	P.73
04. 권호문, 「한거십팔곡」	P.62	11. 김광옥, 「울리유곡」	P.74
05. 이항, 「도산십이곡」	P.64	12. 윤선도, 「어부사시사」	P.75
06. 이이, 「고산구곡가」	P.66	13. 윤선도, 「오우가」	P.78
07. 김득연, 「산중잡곡」	P.68	14. 윤선도, 「만흥」	P.79

15. 윤선도, 「견회요」	P.80	20. 권구, 「병산육곡」	P.88
16. 윤선도, 「몽천요」	P.81	21. 위백규, 「농가」	P.90
17. 신계영, 「전원사시가」	P.82	22. 안민영, 「매화사」	P.92
18. 이휘일, 「전가팔곡」	P.84	23. 안서우, 「유원십이곡」	P.94
19. 이정환, 「비가」	P.86		

[사설시조]

01. 정철, 「장진주사」	P.97	05. 작자 미상, 「개를 여러문이나 기르되~」	P.99
02. 작자 미상, 「두터비 파리를 물고~」	P.97	06. 작자 미상, 「임이 오마 하거늘~」	P.99
03.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다~」	P.98	07. 작자 미상, 「귀소리 저 귀소리~」	P.100
04. 박문육, 「내게는 원수가 없어~」	P.98		

Part II. 가사

01. 정극인, 「상춘곡」	P.104	11. 박인로, 「누항사」	P.140
02. 조위, 「만분가」	P.106	12. 정훈, 「탄궁가」	P.144
03. 송순, 「면앙정가」	P.111	13. 안조원, 「만언사」	P.146
04. 정철, 「성산별곡」	P.115	14. 김춘택, 「별사미인곡」	P.150
05. 정철, 「관동별곡」	P.119	15. 이광명, 「북찬가」	P.152
06. 정철, 「사미인곡」	P.126	16. 작자 미상, 「봉선화가」	P.154
07. 정철, 「속미인곡」	P.129	17. 작자 미상, 「덴동어미화전가」	P.156
08. 허난설헌, 「규원가」	P.132	18. 신계영, 「월선현십육경가」	P.160
09. 허전, 「고공가」	P.135	19. 김인겸, 「일동장유가」	P.166
10. 박인로, 「선상탄」	P.138		

Part III. 향가 · 고려가요 · 한시 · 민요와 잡가

[향가]

01. 득오, 「모죽지랑가」	P.171	02. 월명사, 「제망매가」	P.172
-----------------	-------	-----------------	-------

[고려가요]

01. 작자 미상, 「동동」	P.174	04. 작자 미상, 「청산별곡」	P.179
02. 정서, 「정과정」	P.176	05. 작자 미상, 「가시리」	P.181
03. 작자 미상, 「서경별곡」	P.177		

[한시]

01. 최치원, 「추야우중」	P.183	06. 정약용, 「고시 8」	P.187
02. 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	P.183	07. 정약용, 「보리타작」	P.188
03. 최치원, 「촉규화」	P.184	08. 설장수, 「어옹」	P.189
04. 정지상, 「송인」	P.185	09. 유종원, 「강설」	P.190
05. 이색, 「부벽루」	P.186		

[민요와 잡가]

01.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P.192	03.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P.195
02. 작자 미상, 「정선 아리랑」	P.194	04. 작자 미상, 「유산가」	P.197

정답과 해설

P.202

부록

P.233

작품 이름으로 찾기

작품명	교재 페이지
-----	--------

ㄱ	
가노라 삼각산아~	53
가시리	181
강설	190
개를 여러문이나 기르되~	99
견회요	80
고공가	135
고산구곡가	66
고시 8	187
관동별곡	119
국화야 너는 어이~	41
귀거래 귀거래~	47
귀소리 저 귀소리~	100
규원가	132
까마귀 겹다 하고~	45
까마귀 싸우는 곳에~	44
꿈에 다니는 길이~	54
ㄴ	
내게 좋다 하고~	45
내게는 원수가 없어~	98
노래 삼긴 사름~	52
농가	90
농암에 올라 보니~	48
누항사	140
ㄷ	
단가 육장	60
덴동어미화전가	156
도산십이곡	64
동동	174
동창이 밝았느냐~	40
두류산 양단수를~	49
두터비 파리를 물고~	97

ㄹ	
마음이 어린 후니~	48
만분가	106
만언사	146
만흥	79
말 업슨 청산이오~	50
매화사	92
면앙정가	111
모죽지랑가	171
몽천요	81
뫼버들 가려 꺾어~	37
ㅂ	
백설이 잤아진 골에~	43
별사미인곡	150
병산육곡	88
보리타작	188
봉선화가	154
부벽루	186
북찬가	152
북풍은 나무 끝에 불고~	46
비가	86
빈천을 팔려고~	39
ㅅ	
사미인곡	126
사시가	57
산은 옛 산이로되~	52
산중잡곡	68
삼등에 베풀 입고~	49
상춘곡	104
서경별곡	177
선상탄	138
선인교 나린 물이~	43

* 작품 이름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아래에서 찾아 학습해 보세요.

성산별곡	115
속미인곡	129
송인	185
수양산 바라보며~	46
시집살이 노래	192
○	
어부단가	58
어부사시사	75
어옹	189
어와 동량재를~	38
어이 못 오던다~	98
어저 내 일이야~	36
오우가	78
월선한십육경가	160
유산가	197
유원십이곡	94
율리유곡	74
이 몸이 쓸 데 없어~	50
이런들 어떠하며~	44
이화에 월백하고~	34
이화우 흠뻑릴 제~	37
일동장유가	166
임 이별 하올 적에~	41
임이 오마 하거늘~	99
입암이십구곡	70
ㅈ	
자경	72
장육당육가	73
장진주사	97
재 너머 성 권농 집에~	51
전가팔곡	84
전원사시가	82

정과정	176
정선 아리랑	194
제가야산독서당	183
제망매가	172
조흥시가	39
지당에 비 뿌리고~	51
ㅊ	
천만리 머나먼 길에~	35
철령 노픈 봉을~	38
청산별곡	179
청초 우거진 골에~	36
초암이 적료흔디~	40
축규화	184
추강에 밤이 드니~	47
추야우중	183
춘향이별가	195
ㅋ	
탄궁가	144
ㆁ	
풍상이 섞어 친 날에~	35
ㆆ	
한거십팔곡	62
형산의 박옥 얻어~	53
흥망이 유수하니~	34

고전을

면하다로

내신과

수능 국어를

한 번에 끝내다

1부.

고전(苦戰)을 면하는 길

고전시가에

나오는 단어, 표현은 오늘날 사용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전시가와 통하기 위해서는 고전시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작품에 쓰인 단어, 표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 나가면 될까요?
‘How to use 고전을 면하다’와 ‘고전시가 ‘이것만은 알고 가자’를 통해 그 방법을
알아봅시다!

How to use 고전을 면하다

고전시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전시가를 해석하는 능력이야.

이를 기르기 위해 「고전을 면하다」에는 고전시가 작품들의 원문과 이에 대한 친절하고 자세한 현대어 풀이, 그리고 작품에 대한 설명들을 실어 놓았어. 이 장치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Step 1, 2, 3의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해. 각 단계별로 🗣️의 설명을 따라가며 읽고, ‘연습으로 탄탄하게’의 문제를 풀며 교재 활용법과 고전시가 학습법을 배워 보자.

Step 1 고전시가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반복해서 읽어 보자.

첫째, 교재에 제시된 고전시가 원문을 읽고 둘째, 친절하고 자세한 현대어 풀이를 읽은 다음 셋째, 이 둘을 비교해 보자. 고전시가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비교함으로써 작품에 쓰인 단어와 표현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아래의 예를 통해 Step 1의 학습법을 배워 보자.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일지춘심을 자유야 알라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 이조년, 「이화에 월백하고~」 —

하얗게 핀 배꽃에 밝은 달이 비치고 은하수는 깊은 밤(밤 11시~새벽 1시)을 알리는 때에
배나무 한 가지에 어려 있는 봄날의 정서를 두견새가 알고 우는 것이겠냐마는
정이 많은 것도 병인 듯싶어 잠 못 들어 하는구나.

첫째 원문 읽기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둘째 현대어 풀이 읽기	하얗게 핀 배꽃에	밝은 달이 비치고	은하수는	깊은 밤을 알리는 때에
셋째 비교하기	‘이화’는 ‘배꽃’을 말하는 거 구나.	‘월백’은 ‘밝은 달’로 해석할 수 있고,	‘은한’은 ‘은하수’인 거고,	‘삼경’은 깊은 밤인 거네. ‘월백’, ‘은한’, ‘삼경’을 고 려하면 시간적 배경은 밤 인가봐.
원문	일지춘심을	자유야	알라마는	
현대어 풀이	배나무 한 가지에 어려 있는 봄날의 정서를	두견새가	알고 우는 것이겠냐마는	
비교하기	‘춘심’은 ‘봄날의 정서’이니까 계절적으로는 봄을 배경으로 하는구나.	‘자유’는 ‘두견새’이고,	‘알라마는’은 ‘알고 우는 것이겠냐마는’으로 해석 되는 거네.	
원문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현대어 풀이	정이 많은 것도	병인 듯싶어	잠 못 들어	하는구나
비교하기	‘다정’은 정이 많은 것.		‘잠 못 들어 하노라’는 ‘잠 못 들어 하는구나’로 해석되는 거네. 화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봄밤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고전시가에 나오는 표현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해. 고전시가에는 비슷한 단어,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
에 이 책에 실린 고전시가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3회 이상 읽다 보면 암기하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자주 나오는 단어,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을 거야.

2부.

고전(古典)으로 통하는 길

Part I . 시조_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Part II . 가사

Part III . 향가 · 고려가요 · 한시 · 민요와 잡가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시조의 유형에는 3장의 기본 형식으로 구성된 '평시조'와 평시조에서 중장 혹은 종장이 길어진 '사설시조', 여러 수의 평시조가 하나의 작품으로 묶인 '연시조'가 있습니다.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은 대개 4음보로 끊어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라는 구절은 '이화에 / 월백하고 / 은한이 / 삼경인 제'와 같이 운율을 살리며 끊어 읽을 수 있지요. 또한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3글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점도 시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Part I에서는 평시조와 연시조를 먼저 공부한 뒤에 사설시조를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참고하며 시조 작품을 학습해 봅시다.

01 이조년,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 삼경(三更)인 제 ^{Q1, Q2}
 하얗게 핀 배꽃에 밝은 달이 비치고 은하수는 깊은 밤(밤11시~새벽1시)을 알리는 때에,

● 해석의 틀 '이화'는 배꽃이라는 뜻으로, '도화(복숭아꽃)', '두견화(진달래꽃)', '행화(살구꽃)' 등과 함께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시어이다.

● 해석의 틀 '삼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를 뜻하는데, '깊은 밤'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녀 시가에 자주 등장한다.

+ 일지춘심(一枝春心)을 ●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배나무 한 가지에 어려 있는 봄날의 정서를 두견새가 알고 우는 것이겠나마는,

+ 해석의 덩 '춘심'은 '봄철에 느끼는 심회'와 '남녀 간의 사랑'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일지춘심'은 '배나무 한 가지'라는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해석의 틀 '두견새(점동새)'는 그 울음소리가 구슬퍼서 한과 서러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쓰인다.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Q3}
 정이 많은 것도 병인 듯싶어 잠 못 들어 하는구나.

주제

봄밤에 느끼는 애상감

특징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부각함

■ **큰거** (시각적 심상) '이화', '월백', '은한' 등, (청각적 심상) '자규'

해제

「이화에 월백하고~」는 봄밤에 느끼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백색의 이미지를 지닌 '이화'와 '월백'이라는 두 대상이 어우러지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기에 두견새의 구슬픈 울음소리까지 더해지면서 화자의 애틋한 심정이 심화되고 있다.

빠른 정답 1.0 2.X 3.0 ⇨ 해설 p.202

Q1 밝은 달빛을 받는 '이화'에서 환기된 화자의 정서가 '자규'를 통해 심화되고 있다. ○ X

Q2 '삼경'은 화자가 대상과 이별하는 시간적 배경이다. ○ X

Q3 종장에서 애상적 정서를 주체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X

02 원천석,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Q1}
 (나라의) 흥하고 망함이 운수에 달려 있으니, 만월대(고려 왕궁터)에도 가을 풀이 우거져 있구나.

● 해석의 틀 '흥망'이란 '잘되어 일어남과 못되어 없어짐.'이라는 뜻이다. 주로 국가나 왕조가 생겨나 번영하다가, 시간이 지나 쇠락하게 되는 일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쳤으니
 오백 년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깃들여 있으니,

석양(夕陽)에 지나가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Q2, Q3}
 석양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소리를 듣고) 눈물겨워 하는구나.

주제

망국(고려의 멸망)에 대한 한과 회고

특징

① 중의적인 시어와 영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 **큰거** (중의적 시어) '석양': 해가 저물 무렵 / 고려 왕조의 멸망, (영탄) '만월대도 추초로다', '눈물겨워 하노라'

② 청각적 심상을 통해 인생무상의 정서를 드러냄

■ **큰거** '오백 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

해제

「흥망이 유수하니~」는 고려의 충신이었던 작가가 옛 고려의 성터를 지나면서 고려 왕조 오백 년의 업적을 생각하고, 세월의 무상함에 대해 슬픔을 드러내는 회고적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 특히 잡초가 우거진 성터에서 목동의 구슬픈 피리 소리를 들으며 지금은 망해버린 옛 왕조를 떠올리는 모습에서 애상적인 분위기가 부각되어 나타난다. 또한 화자는 종장에서 자신을 '객'이라고 표현하며 주관적 정서를 객관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빠른 정답 1.0 2.0 3.0 ⇨ 해설 p.202

Q1 화자는 독백의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X

Q2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이다. ○ X

Q3 '눈물겨워 하노라'에서 침울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X

03 왕방연,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14 수능AB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옵고 ^{Q1}
천만리 머나먼 곳(영월)에서 고운 임(단종)과 이별하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Q2}

나의 (슬픈)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냇가에 앉았더니,

저 ●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Q3}

(흘러가는) 저 (시냇)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 **해석의 틀** (시냇)물이 소리를 내며 흐른다는 속성을 활용해, 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슬픈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은 「변회요」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임(단종)과의 이별에서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

특징

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냄

■ 근거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옵고'

② 인간과 자연물을 동일시하여 화자의 슬픔을 부각함

■ 근거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해제

「천만리 머나먼 길에~」는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켜 유배 보내자, 어린 임금(단종)을 유배지로 모신 후 그를 혼자 남겨두고 돌아오는 길에 느낀 작가의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다. 특히 화자가 깊은 밤 냇가에 홀로 앉아 시냇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며 이를 자신의 마음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통해 주제 의식이 부각되고 있다.

빠른 정답 1. O 2. X 3. O → 해설 p.202

Q1 초장에서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임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X

Q2 '냇가'는 속세와 대비되는 성찰의 공간을 의미한다. ○ X

Q3 종장에서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X

04 송순, 「풍상(風霜)이 섞어 친 날에~」

03 학평

● 풍상(風霜)이 섞어 친 날에 갓 피은 황국화(黃菊花)를 ^{Q1, Q2}
바람 불고 서리가 내린 곳엔 날에 갓 피어난 황국화를

● **해석의 틀** '풍상'은 바람과 서리란 의미로 시련과 고난을 비유한다. 이를 통해 낫은 상황에서 피어난 '국화'의 절개가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금분(金盆)에 가득 담아 옥당(玉堂)에 보내오니

금화분에 가득 담아 흥문관(조선 시대에 궁중의 문서를 관리하던 관아)으로 보내주시니,

도리(桃李)야 꽃인 채 마라 님의 뜻을 알래라 ^{Q3, Q4}

복숭아꽃과 오얏꽃아, 꽃인 척 하지 마라. (황국화에 담겨 있는) 임금의 뜻을 알겠구나.

주제

변함없는 충정과 고고한 절개

특징

대조적인 소재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부각함

■ 근거 '황국화' ↔ '도리'

해제

「풍상이 섞어 친 날에~」는 임금에 대한 충정을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황국화'와 금방 변해버리는 '도리'를 대조하여 화자의 충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빠른 정답 1. O 2. O 3. O 4. O → 해설 p.202

Q1 '풍상'은 '황국화'를 돋보이게 하는 소재이다. ○ X

Q2 '섞어 친'과 '갓 피은'은 대조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 X

Q3 '황국화'는 '도리'와 상징적 의미가 대비되는 자연물이다. ○ X

Q4 '님의 뜻'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강직한 신하가 되라는 의미이다. ○ X

2부.

고전(古典)으로 통하는 길

Part I . 시조_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Part II . 가사

Part III . 향가 · 고려가요 · 한시 · 민요와 잡가

가사는

한 줄을 4음보로 끊어 읽는다는 점에서 시조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분되는 것과는 달리 가사는 대체로 길이가 길어 한 작품을 '서사-본사-결사'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작품의 길이가 긴 가사는 시험에서 전문을 모두 활용하지 않고 일부를 발췌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품의 어느 부분이 지문으로 출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과 주제, 특징을 중심으로 공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전을 면하다」에서는 최대한 전문을 수록하되, 길이가 너무 긴 일부 작품은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가사는 길이가 길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조를 공부하면서 보았던 단어,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비교해가며 읽는 연습을 한 다음에는 OX 문제 풀이로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해 봅시다.

01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흔고 ^{Q1}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여,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이 어떠한가?
 냇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나의 이 풍류가) 옛 사람들의 풍류(멋스럽고 풍치가 있게 노는 일)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나만한 사람이 많지만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모를 것가
 자연에 묻혀 산다고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몇 칸짜리 초가집을 맑은 시냇물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서라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이곳에서 자연의 주인(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서사)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Q2}
 엇그제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어 있고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프르도다 ^{Q3}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구나.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아름다운 봄 풍경을 조물주가) 칼로 마음질한(잘라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
 조물주의 신묘한 솜씨가 자연을 하나하나마다 야단스럽구나!(=감탄스럽구나!)

● 해석의 틀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기 위해 조물주가 야단스럽게 자연을 만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고전 시가 작품들이 많다. 「상춘곡」 외에도 「면양정가」, 「성산별곡」, 「관동별곡」 등에서 유사한 표현이 나타나니 확인해 보자!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수풀에서 우는 새는 봄 흥취에 겨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Q4}
 (지저귀는) 소리마다 마치 교태를 부리는 듯하구나!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룰소나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되었으니 (나의) 흥겨움이 (새의) 흥겨움과 어찌 다르겠는가?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사립문 주변을 걷기도 하고 정자에 앉아 보기도 하니,
 소요음영(逍遙吟詠) 허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흔디
 천천히 거닐며 시를 나직이 읊조리는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한가한 가운데 맛보는 참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로우나.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여보게 이웃 사람들아, 자연(경치) 구경 가자구나.
 답청(踏青)으란 오늘 호고 욱기(浴沂)란 내일 후새
 답청(봄에 파랗게 난 풀을 밟으며 산책함)은 오늘 하고, 욱기(명예와 이익을 잊고 개울에서 목욕을 하며 유유자적함)는 내일 하세.
 아춤에 채산(採山)호고 나조히 조수(釣水)후새
 아침에는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는 낚시를 하세.

곳 괴여 닉은 술을 갈진(葛巾)으로 밧타 노코
 이제 막 익은 술을 침베로 만든 두건(술을 걸러 마시는 도구)으로 걸러 놓고,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꽃나무 가지를 꺾어 (술잔의) 수를 세면서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온화한 봄바람이 문득 불어서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Q1 청자에게 묻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

Q2 '새봄'은 애상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한다.

○ ×

Q3 '도화행화는~프르도다'에서 자연물을 통해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Q4 '수풀에 우는 새는~교태로다'에서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Q5
 맑은 향기는 술잔에 가득하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준중(樽中)이 뷔엿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술동이기가 비엿거든 나에게 알려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술집에서 술 받아오라 하여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논 술을 메고
 어른은 지팡이를 잡고, 아이는 술동이를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 허야 시냇그의 호자 안자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걷다가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고운 모래가 비치는 맑은 물에 잔을 씻어서 (술을) 부어 들고,

청류(淸流) 물 굽어보니 썬오누니 도화(桃花) | 로다 Q6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나려오는 것은 복숭아꽃이로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이고 Q7, Q8
 무릉도원(신선이 사는 곳, 낙원, 이상향)이 가까이에 있구나, (복숭아꽃이 떠나려온) 저 들이 바로 그곳(무릉도원)인가?

송간 세로(松間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들고
 소나무 사이 숲속 좁은 길로 진달래꽃을 손에 들고,

봉두(峰頭)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니
 수많은 촌락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뻗는 듯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은 (마치) 수놓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하다.

엿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샤
 엿그제까지만 해도 (겨울이어서) 거뭇거뭇했던 들판에 봄빛이 넘치는구나.

<본사> 봄 풍경에서 오는 흥취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공명(공을 세워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나를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맑은 바람과 밝은 달(아름다운 자연) 이외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누추한 시골에서 먹는 한 그릇 밥과 한 바가지 물(선비의 소박한 시골 생활)에 헛된 생각은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Q9
 아무튼 한평생 누리는 즐거움이 이만하면 어떠한가?(=만족스럽지 않은가?)

<결사> 안빈낙도하는 생활에 대한 만족감

주제

봄을 맞이한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과 이에 대한 예찬

특징

- ①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봄의 풍경을 드러냄
근거 (시각적 심상) '도화(복숭아)는 석양리에 띄어 있고 / 녹양방초는 세우중에 프르도다', (공감각적 심상: 후각→시각) '청향은 잔에 지고' 등
- ② 설의와 영탄을 통해 봄 경치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드러냄
근거 (설의) '물아일체이니 흥이이 다를소나', (영탄)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서라' 등

해제

「상춘곡」은 아름다운 봄의 풍경과 이로 인한 흥취를 노래하는 조선시대 최초의 가사 작품이다. 이러한 자연 친화적 태도는 「면양정가」와 「성산별곡」, 「관동별곡」 등에 영향을 주었다.

🔍 <보기>로 작품 보기

작가가 자신이 은거하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 주위를 노닐며 자연미를 체험하는 방식을 '유거'라고 하는데, 「상춘곡」은 이러한 유거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Q5 '화풍이~낙홍은 옷새 진다'에 자연 풍경에 동화된 화자의 흥취가 드러나 있다.

Q6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Q7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차이점이 부각되고 있다.

Q8 '청류를~권 거이고'에서 시냇물에 떠나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모습을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흥이 드러난다.

Q9 설의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2부.

고전(古典)으로 통하는 길

Part I . 시조_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Part II . 가사

Part III . 향가 · 고려가요 · 한시 · 민요와 잡가

Part 3에서는

‘향가’, ‘고려가요’, ‘한시’, ‘민요와 잡가’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들 갈래는 평가원 시험에서 시조나 가사만큼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주 출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갈래별 필수 작품들은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와 더불어 각 갈래의 창작 시기나 특징 등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01 특요,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간 봄 그리매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매
 모든 것사 우리 시름
 모든 것이 울며 시름하는데
 아롬 나토샤온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즈시 살쫘 디니져
 얼굴이 주름살을 지니려 하옵니다.
 눈 돌칠 수이에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맛보옵디 지소리
 만나 뵈도록 하리이다.
 낭(郎)이여 그릴 무수미 녀올 길 ^{Q1} ^{Q2}
 낭(죽지랑)이여 그리운 마음의 가는 길이
 다북 무솔히 잘 밤 이시리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 잘 밤이 있으리이까?

〈양주동 해독〉

간 봄 문 오리매
 지나간 봄은 다시 오지 못하니
 모돌 기스샤 우를 이 시름
 살아계시지 못하여 우는 이 시름
 무돔곳 불기시온
 전각을 밝히신 모습(죽지랑의 모습)이
 즈시 히 헤나삽 헐니져
 해가 갈수록 헐어갑니다.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
 누니 도랄 없시 더웃
 눈을 돌리지 않고서야
 맛보기 엇디 일오아리
 어찌 만나보기를 이루리.
 낭(郎)이여 그릴 무수미 쯤 녀올 길
 낭(죽지랑)이여 그리워하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
 다보짓 굴형히 잘 밤 이샤리
 다북쑥 우거진 구렁에 잘 밤이 있으리이까?

〈김완진 해독〉

주제

죽지랑을 향한 사모(추모)의 정과 그리움

특징

① 비유와 설의를 통해 대상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냄

근거 (비유) '간 봄(죽지랑과 함께했던 과거의 시간)', (설의) '다북 무솔히 잘 밤 이시리', '다보짓 굴형히 잘 밤 이샤리'

② 세월의 흐름을 안타까워하는 정서가 드러남

근거 '아롬 나토샤온 / 즈시 살쫘 디니져', '무돔곳 불기시온 / 즈시 히 헤나삽 헐니져'

해제

「모죽지랑가」는 8구체 향가로 순수 서정시의 성격을 지닌 작품에 해당한다. 죽지랑이 자신의 무리에 속한 낭도 특요에게 도움을 준 일이 있었는데, 이에 감동받은 특요가 훗날 죽지랑을 향한 그리움의 심정을 담아 창작하였다고 전해진다. 다만 정확한 창작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지어진 것이라는 주장과 죽지랑이 죽은 뒤에 지어진 것이라는 주장으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에 따라 작품의 성격 역시 사모시(양주동 해독)와 추모시(김완진 해독)로 달리 해석될 수 있다.

Q1 대화를 인용하여 화자와 연관된 인물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Q2 '길'은 상대방과 재회하려는 화자의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01 황희, 「사시가」

→ 문제 p.57

Q1 ○

〈제1수〉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을 직접 명시하고 있으며, 〈제2수〉에서는 ‘세우중’, ‘녹음’ 등의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이 여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제3수〉에서는 ‘대초불 불근 골’, ‘벼 벼 그루터기’라는 표현을 통해, 〈제4수〉에서는 ‘눈’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을과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Q2 ○

〈제1수〉의 ‘그물 깊고’, 〈제2수〉의 ‘산전을 훑매’는 행위들은 자연 속에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 구절이다. 이를 통해 자연을 노동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작가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Q3 ○

〈제3수〉의 ‘술 닉자 체장수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가을의 풍요로움을 즐기는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Q4 ×

〈제4수〉에서 ‘늪은이’는 낚시에 재미가 깊어 눈이 깊은 줄도 모르고 있다.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늪은이’는 겨울의 자연을 즐기는 존재라고 할 수 있으므로, 화자와 마찬가지로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02 이현보, 「어부단가」

→ 문제 p.58

Q1 ×

〈제1수〉의 초장에서는 구체적인 어부의 생활을 확인할 수 없다. 화자는 자연에 은거하여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며, 실제 어부가 아니다. 따라서 어부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

Q2 ○

〈제1수〉의 ‘만경파(끝없이 넓은 바다 위)’는 어부의 생활 공간이다. 시름 없이 살고 있는 어부는 ‘만경파, 천심녹수, 만첩청산, 강호’에서 세속의 일을 잊고 있다. 따라서 속세를 뜻하는 ‘인세, 흥진, 장안, 북꺾’과 ‘만경파’는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Q3 ○

〈제1수〉에서 화자는 속세를 다 잊고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으나, 〈제5수〉에서 (북꺾을) 잊은 적이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속세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한 화자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Q4 ○

화자는 속세를 떠나 현재 ‘강호’에서 은거하고 있다. 화자는 속세와 자연 사이의 거리감을 ‘천심녹수’, ‘만첩청산’, ‘십장흥진’ 등 ‘수(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Q5 ○

〈제2수〉의 종장에서는 ‘~후애라’ 등 감정을 강하게 토로하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에서 욕심없이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Q6 ○

〈제3수〉의 초장에서는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푸른 연잎에 밥을 싸고 버들가지에 고기를 꿰는 구체적 모습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Q7 ○

〈제3수〉의 종장은 의문형 종결 어미 ‘~ㄹ가’를 활용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자연의 참된 의미를 어느 분이 아시겠는가?’라는 의문에는 화자처럼 자연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적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Q8 ○

화자가 〈제4수〉에서 자연을 대표하는 ‘한운(구름)’과 ‘백구’와 더불어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이들이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자연물임을 알 수 있다.

03 이신의, 「단가 육장」

→ 문제 p.60

Q1 ○

〈제3수〉의 제비는 유배지에 묶여 있는 화자와는 달리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이다. 자신과 대조되는 제비를 보며 ‘한숨 겨워’하는 화자를 통해 제비가 시름, 걱정을 불러일으키는(환기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Q2 ○

〈제5수〉의 초장에서 화자는 인간에게 진정한 벗은 밝은 달빚임을 의문형 종결 어미(설의)를 사용해 강조하고 있다.

04 정철, 「성산별곡」

→ 문제 p.115

Q1 ×

‘산옹의 할 일’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 운 일상생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할 일’이 세상을 위해 해 나가야 할 과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Q2 ○

[A]의 ‘울 밑 양지 편에 외씨를 뿌려 두고’는 중국 진나라 때, 소평이 나라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청문 부근에서 농사를 지으며 오이씨를 심었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고사의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했을 때, 산옹이 ‘외씨’를 뿌리는 모습은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외씨를 뿌’리고 김을 매거나 흙을 돋우면서 가꾸는 모습에서 산옹의 소박한 일상을 확인할 수 있다.

Q3 ○

‘남풍이 건듯 불어 녹음을 헤쳐 내니’의 ‘남풍’과 ‘녹음’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여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도화’가 피었다고 한 <본사>의 봄 풍경에서 ‘남풍’이 불고 ‘녹음’이 우거진 여름으로 계절적 배경이 변화한 것이다.

Q4 ○

‘희황’은 태평성대를 이룬 중국 전설에 나오는 ‘복희씨’의 다른 이름으로, ‘태평한 세상’을 상징한다. 이러한 고사의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화자가 ‘희황’ 고사를 활용한 것은 자연에서 풋잡을 자다 깨며 느낀 평안함에서 ‘희황’으로 상징되는 태평함을 연상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Q5 ○

화자는 ‘한기(책)’를 통해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며 시운, 즉 시대의 운수가 흥했다가(역사의 영광) 망했다가(역사의 고난) 하는 것을 깨닫고 있다.

Q6 ×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이야고야 / 손인동 주인인동 다 있어 버렸어라’에서 ‘손’과 ‘주인’은 어울려 거문고를 타며 ‘풍입송’을 즐기고 있다. 즉 두 사람은 함께 어울려 자연을 즐기고 있기에, 그 과정에서 화자의 소외감이 심화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Q7 ○

‘손’은 이 골짜기의 신선이 바로 ‘주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연을 즐기는 ‘주인’의 삶이 신선의 삶과 다름없다는 의미로, 화자가 손님의 말을 빌려 주인의 흥취있는 삶에 대한 흥미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5 정철, 「관동별곡」

→ 문제 p.119

Q1 ×

화자가 ‘강호애 병이 깊’다고 한 것은 자연 속에서 살고 있음을 표현한 것일 뿐, 인간이 자연에 귀의해야만 유한성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를 「관동별곡」의 주제 의식으로 보기도 어렵다.

Q2 ×

‘천고 흥망을 아난다 물으난다’에서 화자는 공왕의 궁궐 터를 보며 흥망성쇠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을 뿐, 공왕이 망하게 된 이유를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Q3 ○

화자는 금강산 산봉우리의 모습이 ‘부용’을 꽃아 놓은 듯하고 ‘북극’을 받치고 있는 듯하다는 등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산봉우리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Q4 ○

‘비로봉 상상두의 올라 보니 그 뉘신고~넙거나 넓은 천하 엇씨후야 적다’ 말고’에서 화자는 비로봉을 바라보며 동산, 태산에 올라 노국과 천하를 좁다고 했던 공자의 정신적인 경지를 떠올리고 있다. 즉 화자는 비로봉에 오르는 행위의 의미를 공자라는 성인의 체험에 빗대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Q5 ×

‘어와 더 디워롤 어이후면 알 거이고 / 오루디 못후거니 느려가미 고 이힐가’에서 화자는 동산과 태산에 올라 노국과 천하가 좁다고 말한 공자의 정신적인 경지를 떠올리며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실감하고 하산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화자가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를 자연 속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Q6 ○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는 모두 화자가 거쳐 온 여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 너머 디어’에서는 화자가 자신이 지나온 장소를 나열하고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너머 디어(내려가서)’로만 최소화함으로써 그 여정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